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12

2013 <http://www.ucac.or.kr>

나윤선

Winter Jazz Concert



• 뱅상빠라니



• 올프 바케니우스



• 시몽 타이유

2013.12.26(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입장권 | R석 · 4만원/S석 · 3만원/A석 · 2만원 (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 등 급 |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C / O / N / T / E / N / T / S



04 **차 한 잔을 마시며** | 12월의 끝자락에서...

06 **기획공연** | 년버블 퍼포먼스 난타
2013 크리스마스 특집 "아주특별한 오페라 콘서트"
나윤선 윈터 재즈콘서트
12월 스위트콘서트
12월 모닝콘서트



13 **기획전시** | 올해의 작가 12월- 하혜정

14 **울산시립예술단 공연** | 합창단 제86회 정기연주회 "메시아"
교향악단 「월드 뮤지션, 그랜드 콘서트」
시립무용단 송년공연
교향악단 송년음악회
청소년합창단 제28회 정기연주회 송년의 밤



24 **예술을 말하다** |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예술축제를 찾아서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오페라의 거장 리하르트 바그너(IV)

32 **공연·전시가이드** | 12월의 공연·전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년 12월호 통권 170호

발행처 |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 (달동 413-13)
T.052-226-8241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발행인 | 이형조 편집인 | 안종철

기획·편집 | 박용하, 고순영

편집 | 박용운, 권혁민, 김내영

디자인·제작 | 예성인쇄기획 T.052-227-3884



12월의 끝자락에서...



울산문화예술회관장
이형조

거리의 가로수들이 붉은 빛깔로 치장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계절은 입동을 지나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부푼 희망과 새로운 기대 속에 출발했던 계사년이 이제 세월 속으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의 발전을 위해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석양을 바라볼 때 늘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한 해를 갈무리 하는 석양은 다시금 우리 곁에 희망의 태양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올 한 해 부족했던 아쉬움은 내년을 위한 발전의 디딤돌로 자리매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1995년 10월 5일에 개관한 우리 회관은 수성을 넘어 무한한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토대는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 볼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많은 일들을 성취하였으며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시립예술단이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위한 발전과 더 큰 도약의 발판을 이룬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11시 모닝 콘서트와 스위트 콘서트, 조운범의 파워 클래식 등 재미와 감동이 있는 맞춤형 기획공연을 비롯하여 품격 높은 시립예술단 공연으로 시립교향악단의 교향악 축제 개막연주회, 시립합창단의 마카오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시립무용단의 한국·캐나다 수교 50주년 초청공연, 그리고 창작 뮤지컬 대화강의 국립극장 초청공연의 성과에 이어 공공성과 예술성을 강화한 기획전시는 관객과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올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예술, 새로운 상설 전시장 “쉽”의 개관과 함께 올해의 작가 개인전 기획 전시는 예술로 소통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각별한 의미가 있으며, 클래식 음악의 이해와 미술의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2개 기관단체와 협약체결을 통한 문예회원 확충사업, 전국 최초로 시립예술단



보유의상을 지역 예술인에게 무료로 대여해줌으로써 지역예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을 함께 해 주신 관객과 시민 모두의 애정과 격려의 결과라 생각하며 모든 분들께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곳, 삶이 즐겁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곳, 창조의 기쁨을 마음껏 발휘하는 예술가들이 있는 곳, 그 곳이 우리가 꿈꾸는 문화도시 울산광역시의 모습입니다.

문화도시란 결국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도시, 삶속에서 예술을 향유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꿈과 희망은 시민들을 위해, 관객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21세기의 문화예술의 화두는 창조적 독자성을 통한 브랜드화라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의 고유한 역사와 인물과 자연을 정신적 가치로 승화시키고 울산광역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예술적 작업이 필요한 시대라 생각합니다.

에코폴리스 울산광역시에서 문화예술회관과 시립예술단은 시대를 앞서 나가는 새로운 창조적 예술 작품과 시민들을 위한 열린 문화예술행정으로 산업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울산광역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쉽고 힘들었던 기억들은 모두 흘려보내고 훈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희망찬 갑오년을 맞이합시다.

올 한 해 수고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COOKIN' NANT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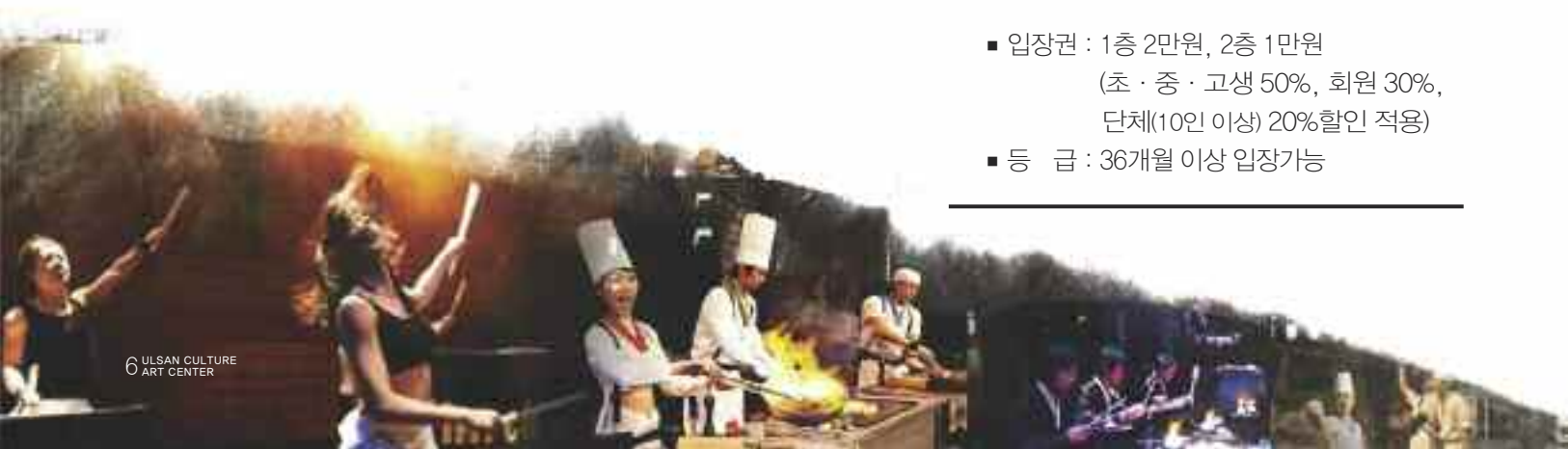
2013 울산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15년 장기공연의 힘!
한국 공연 역사상 최다 관객을 동원한 믿을 수 없는 신화!
800만 관객의 이유 있는 선택,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감동한 난타!



2013. 12. 28 (토) 오후3시, 7시
29 (일) 오후2시, 6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입장권 : 1층 2만원, 2층 1만원
(초·중·고생 50%, 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할인 적용)
- 등 급 : 36개월 이상 입장가능





한국 전통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린 한국 최초의 비언어극(Non-verbal performance)!

난타는 칼과 도마 등의 주방기구가 멋진 악기로 승화 되어 만들어내는 화려한 연주, 깜짝 전통혼례, 관객과 함께하는 만두쌓기, 한국 전통춤과 가락이 어우러지는 삼고무, 가슴이 뻥 뚫릴만큼 시원한 엔딩의 드럼연주 등으로 구성되는 '난타'는 국적을 불문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신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파워풀(powerful)한 공연이다.

1997년 10월 초연부터 폭발적 반응으로 현재까지 한국 공연 사상 최다 관객을 동원하였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하여 작품성을 높여왔다. 해외 첫 데뷔 무대인 1999년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았으며, 이후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일본, 대만, 싱가포르, 네덜란드, 호주 등 계속되는 해외공연의 성공을 발판으로 뉴욕 브로드웨이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이루었다. 2004년 3월 7일, 브로드웨이 Minetta-Lane Theater에서 아시아 최초로 장기공연에 들어간 난타는 2005년 8월 7일, 성황리에 1년 6개월간의 막을 내린다.

현재 서울과 제주도의 전용관에서 연중 상설공연 중인 '난타'는 한국에서는 전무후무하게 15년째 장기 공연을 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놉시스

세명의 요리사가 하루일과를 시작한다.

즐겁게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지배인의 깜짝 등장!

잡채, 인절미, 크립케이크등등등! 다짜고짜 요리 목록을 읊으며

예정에 없던 결혼식 파티를 준비하라는 깜짝 명령!

설상가상 낙하산 주방장인 매니저의 조카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천방지축 사고뭉치였던 것!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시간! 한 시간!

과연 이 사총사가 모여완벽한 결혼 파티를 준비할 수 있을까?

끊이지 않는 에피소드, 쏟아지는 웃음과 두드림! 스트레스 해소 샤샤샤



크리스마스 특집

아주특별한 오페라 콘서트

2013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나는 “아주특별한 오페라 콘서트”

201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특별한 크리스마스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의 오페라갈라콘서트보다 버라이어티한 무대와 출연진으로 색다른 갈라콘서트로 제작중이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는 정통오페라갈라콘서트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국내 최고의 실력과 인지도를 겸비한 성악가들이 들려주는 오페라 아리아는 관객들로 하여금 심금을 울릴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부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꾸며진다. 뮤지컬곡, 팝송, 캐롤송 등으로 쇼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관객들에게 무한한 즐거움을 선사, 딱딱한 공연의 느낌을 없애고 무대와 객석이 함께 호흡하는 공연이 될 것이다.

관객들에게 친숙한 곡 선택과 무대배경, 그리고 박상현 지휘자와 50인조 오케스트라로 풍성한 무대를 준비중이다.

2013년 크리스마스 이브,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오페라콘서트”로 2013년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2013. 12. 24(화)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출연진 : 김남두, 서정학, 함석헌, 한경미,
김수연, 김종서, 박기영,
모스틀리 오케스트라 50인조
- 지휘 : 박상현
- 반주 : 모스틀리 오케스트라
- 입장권 : R석 · 3만원/S석 · 2만원
(초 · 중 · 고생 50%, 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할인 적용)
- 등급 : 초등학교 이상 입장가



*** 테너 김남두**

- 전주대학교 음악교육학 학사
- 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 음악예술학부 연구교수
- 오페라 1998년 투란도트
- 오페라 1997년 춘향전

- 오페라 1997년 아이다
- 오페라 1997년 가면무도회



*** 바리톤 서정학**

- 커티스 음악대학
- 서울대학교 성악과 학사
- 오페라 2010년 서정학 리사이틀 : 숨 a breath
- 오페라 2004년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 엔리코 역

- 오페라 1993년 팔스타프



*** 소프라노 한경미**

- 한스아이슬러음악대학교대학원 성악 석사
- 연세대학교 성악 학사
- 오페라 스타 2012
- 서울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소프라노 김수연**

- 반국립음악대학교대학원 가곡, 오라토리오 석사
- 반국립음악대학 성악
- 2013 청소년 여름 음악제 - 씨네마 뮤직 콘서트
- 2013 서울신문 한여름밤의 콘서트

- 3디바 콘서트 - Voices of Spring
- 오페라 <마술피리>, <라 트라비아타>, <카르멘>, <피가로의 결혼>, <리골레토>



*** 베이스 함석헌**

- 장일범의 생생 오페라 갈라콘서트
- 차이콥스키&비바체싱어즈
- 토스카 - 부산
- 2013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 오페라 손양원
- KBS교향악단 제644회 정기연주회 - 마스터즈시리즈



*** 가수 김중서**

- 그룹 '시나위' 보컬
- 공주영상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 2013 tvn 오페라 스타

- 대한민국영상음반대상 골든디스크부문 본상



*** 가수 박기영**

- 서울예술대학 실용음악과
- 오페라스타 2013 우승
- 음악의 시대 -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 박기영 콘서트(2011) -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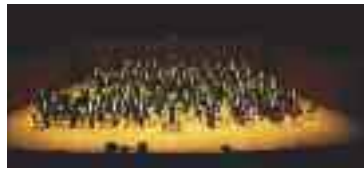
- 영화 키크를 듣다
- tvn 오피스아이돌2008
- 정규앨범 7집



*** 지휘자 박상헌**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음악학과 졸업
-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음악원 오페라 및 교향곡과정 수석졸업
- 도쿄 필하모닉, 우크라이나 국립 교향악단, 러시아 연해주립 교향악단
- KBS 교향악단, 부천 시향, 성남 시향, 코리안심포니 객원 지휘

-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스위니 토드' 음악감독.
- 2012년 오페라스타 시즌2 음악감독겸 지휘자
- 2012년 Arte 방송통신부 주최 "음악성을 보여줘" 심사위원
- 영화 '왕의 남자' OST 지휘, 녹음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2003년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고자 창단된 전문 오케스트라로 2011년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클래식 대중화에 한발 더 다가서고 있다. 2012년 창단 10주년을 맞이하여 베토벤 전곡 연주, 2013년 차이콥스키 교향곡 전곡연주 시리즈를 바탕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클래식 공연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창작활동과 공연 컨텐츠 개발을 통해 대중과 나눔으로 새로운 클래식 문화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창단 이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지휘자 구자범, 나영수, 성악가 조수미, 신영옥, 김동규, 고성현, 서정학, 피아니스트 서혜경, 김정원, 이루마, 첼리스트 장한나, 정명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 허희정, 신현수, 백주영, 하피스트 광정 및 국립합창단, 서울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국립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등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및 예술단체들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외 유명 아티스트로 지휘자 이온 마린, 엔니오 모리코네, 성악가 살바토레 리치트라, 쥘쎙 페 자코미니, 레아 살롱가, 레나 마리아, 요시 카즈메라, 유키구라모토, 비지스, 올 포인, 폴포츠, 케빈켄, 양방언, 헤일리 웨트나, 생마르크 합창단 등의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클래식 공연을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레퍼토리로는 20여 편의 오페라, 교향곡, 미사, 오라토리오, 왈츠를 기본으로 뮤지컬, 영화음악, 드라마 OST, 게임 음악 등 모든 장르를 소화하여 연간 110여회의 왕성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1부 프로그램

- largo al factotum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 Mein Herr Marquis 오페라 박쥐
- la ci darem la mano 오페라 돈 조반니
- Votre toast, je peux vous le rendre 오페라 카르멘
- Caro Nome 오페라 리골레토
- Di quella pira 오페라 ILL TROVATORE
- doll's song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 I love you so
- Nessun dorma 오페라 Trandot
- 축배의 노래 오페라 La Traviata

2부 프로그램

- I bought me a cat
- 오 거룩한 밤
- You raise me up
- Nellafantasia
- amazing grace
- O holy night
- Think of me
- Agnus Dei
- 화이트 크리스마스
- 크리스마스 메들리

나윤선 Winter Jazz Concert

그 어떤 악기보다 정교한 목소리의 스펙터클

“현재 최고의 재즈 보컬은 유럽도 미국도 아닌, 한국에서 온 나윤선이다.”

레제코(Les Echos)라는 프랑스 언론의 평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나윤선은 지난 10년간 유럽 음악계에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금자탑을 세웠다.

2001년 프랑스에서 데뷔작 "Reflect"를 발표하며 활동을 시작한 나윤선은 2008년 유럽 재즈를 대표하는 ACT 레이블과 계약하고 발매한 6집 "Voyage"로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슈발리에를 수훈하는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2010년 발매한 7집 "Same Girl"은 프랑스 재즈 차트 4주 연속 1위를 기록했고, 발매된 지 80주가 넘게 Top 20을 유지하였다.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재즈 앨범상(2009)'을 수상하고, 독일 에코(ECHO) 재즈 시상식에서도 '최우수 여성 가수' (2011)로 선정되는 등, 그녀에 대한 열광은 그칠 줄 모른다.

나윤선의 연주는 본류(本流)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유하고 독보적이다. 송곳처럼 정확하게 음표를 찌르다가도, 한 순간 파도처럼 악보를 휘저어버린다. 그녀는 들숨과 날숨까지도 음악의 일부가 되어 인간의 목소리만큼 섬세한 악기는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8집 "Lento"로 함께하는 이번 콘서트는 그녀의 음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음악적 동지인 울프 바케니우스(기타), 시몽 타이유(베이스), 뱅상 빼라니(아코디언)가 함께 콰르텟 구성으로 무대를 꾸민다. 명실상부 유럽 정상급의 재즈 뮤지션으로 자리매김한 그녀가 동료들과 함께 선사할 황홀한 앙상블을 기대해 보자.

2013. 12. 26(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출연진 : 나윤선, 바케니우스(기타),
시몽 타이유(베이스), 뱅상 빼라니(아코디언)
- 입장권 : R석 · 4만원/S석 · 3만원/A석 · 2만원
(초 · 중 · 고생 50%, 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할인 적용)
- 등 급 :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

• 뱅상빼라니



• 울프 바케니우스



• 시몽 타이유



Sweet Concert Season 6

‘조휘의 뮤지컬토크’

스위트콘서트로 울산이 달콤해진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스위트콘서트’는 울산문화예술회관 자체제작공연으로 올해 시즌6을 맞이하게 되었다. 4년간 진행되었던 스위트콘서트는 뮤지컬 배우 백재현, 강효성, 김선영, 홍지민, 김호영, 최정원 등 쟁쟁한 스타급 뮤지컬 배우들이 거쳐간 울산문화예술회관의 대표적인 상설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에는 국내 대형뮤지컬에 빠지지 않고 최정상급 배우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뮤지컬 배우 ‘정선아’와 재치 있는 입담과 연기력으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뮤지컬 배우 ‘조휘’가 콘서트를 이끌어 간다. ‘2013 스위트콘서트’는 지난 3월 7일 첫 공연으로 시작하여 이번 12월13일 마지막 스위트콘서트가 진행된다.

12월 13일(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조휘의 마지막 뮤지컬토크에는 2012년 “김호영의 뮤지컬파티”에 출연했던 뮤지컬 배우 김준현이 다시 울산은 찾는다. 김준현은 국내보다 일본에서 최고의 인지도를 자랑하는 한국 뮤지컬 배우이다. 2013년에는 대형뮤지컬 <고스트>에 출연 중이다. 이들은 조휘와 함께 무대 뒷이야기들을 통해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들을 들려준다.



2013. 12. 13(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입장권 : 전석 1만 5천원 (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할인 적용)
- 등 급 :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

* 뮤지컬 배우 안솔지

- 노트르담 드파리
- 아르센 루팡
- 천상시계
- 날아라 박씨
- 스페셜 레터



* 뮤지컬 배우 김준현

- 일본
- 극단 사계 라이온 킹
- 에비타
-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 캣츠
- 아이다
- 2011 Broadway Live Concert

- 한국

- 잭 더 리퍼
- 지킬 앤 하이드
- 조로
- 모차르트 오페라 락
- 아이다

Morning Concert Season 6

“라보엠 오페라갈라콘서트”

오는 12월 19일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울산문화예술회관 2013년 모닝콘서트 마지막 공연으로 “라보엠 오페라갈라콘서트” 공연이 무대에 올려진다.

해마다 크리스마스에 빠지지 않는 공연,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되는 사랑이야기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을 갈라콘서트로 만나다. 브로드 웨이 뮤지컬 <렌트>로 각색되기도 한 이 작품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 중 하나로, 파리 뒷 골목을 배경으로 예술과 가난한 삶 속에서 느끼는 걱정, 절망, 불꽃같은 사랑 등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젊은 이들의 이야기이다. ‘라보엠’ 갈라콘서트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주요 아리아와 이중창 등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곡들을 성악가들의 감성적인 노래와 연기로 전막극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 * 바리톤 김민형**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음악학 학사
 - 이탈리아 프로시노네 "Licinio Refice" 국립음악원
 - 비엔노(최고과정) 가곡과 졸업
 - 이탈리아 로마 아카데미
 - 성악 전문 3년 과정 수료
 - 이탈리아 로마 아카데미
 - 성악 심화 과정 수료



- * 테너 김충식**
- 밀라노 시립음악원 졸업
 - 부세또 베르디콩쿨 3위
 - 보케라콩쿨 1위
 - 이스트라온지니 콩쿨1위



- * 테너 김남훈**
- B.Maderna 국립음악원 졸업
 - Locate지역에서 열린 국제 성악 콩쿨에서 듀엣부문 2위 입상
 - Torino 지역에서 열린 국제 성악 콩쿨에서 싱글 부문 3위 입상
 - Grosseto 지역에서 열린 국제 성악 콩쿨에서 1위 우승
 - 2013년에 이탈리아 Milano에 두오모 바로 옆에 위치한 San babila 오페라 극장에서 푸치니 오페라 La Boheme 공연 예정



- * 소프라노 김민조**
- 독일 Darmstadt Akademie fuer Musik 오페라 학교 학사과정 이수
 - 독일 Stuttgart 국립음대 오페라 학교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Francisco Araiza 마스터 클래스 참여



- * 소프라노 손준희**
- 가톨릭대학교 음악과 성악전공 졸업
 - 이탈리아 프랑코 비따디니 국립음악원 성악과 수석 입학,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시립음악원 음악코치과 졸업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사랑의묘약 출연
 - 현 가톨릭대학교 출강



- * 피아노 김소라**
- 덕원예술고등학교 졸업
 - 가톨릭대학교 음대 졸업 예정
 - 성심 오케스트라와 협연
 - 가톨릭대학교 춘계, 추계 연주회 출연

2013.12.19(목)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입장권 : 전석7천원 (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할인 적용)
- 등 급 : 초등학교생 이상 입장가

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지원

올해의 작가 개인전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부족한 전시공간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옥내 주차장에서 당직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열린 전시공간으로 조성하고 올해 6월부터 지역의 유망 작가들을 발굴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실력 있는 지역 작가들을 육성하고자 마련하는 「올해의 작가 개인전」은 참여 작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6월에 합동전을 시작으로 매달 1명씩의 개인전이 릴레이 형식으로 펼쳐지고 있다.

올해 마지막을 장식할 주인공은 하혜정 작가이다. 울산대학교 동양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하혜정 작가는 울산미술대전, 한마음 미술대전, 대한민국미술대상전 등 국내 각종 공모전 수상을 통해 차근차근 프로필을 채워가고 있는 젊은 작가로, 이번 전시에는 “내 마음을 담은 동화” 연작을 선보인다.

동양화를 전공한 하작가는 기본적으로 장지에 채색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밝고 화려하고 선명한 색상을 사용하여 아기자기한 모티프를 화면에 펼쳐놓아, 한지 위에 그린 그림은 은은한 색채를 띄고 붓자국이 드러난다는 전통적인 선입견을 바꿔놓는 작품을 전시한다.

“내 마음을 담은 동화” 시리즈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모티프는 건물과 나비이다. 작가는 길을 가다보면 무심히 마주치게 되는 건물, 특히 똑같이 구획된 아파트와 고층건물을 올려다보면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궁금하고 때로는 상상해보게 된다며 이러한 호기심이 이번 작품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한다.

상상의 공간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를 통해 동화적인 공간을 꿈꾸며 복잡한 도심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동심을 찾고 삶의 여유를 선사하고픈 작가의 마음이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 내 마음 속의 동화 <하혜정 작>



• 내 마음 속의 동화 <하혜정 작>

12 월의 작가 - 하혜정展

12. 1(일)~12. 30(월), 30일간
갤러리 씬



• 12월의 작가 / 하혜정

- 울산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 개인전 · 부스전 3회(울산, 대구)

■ 수상

- 2013~08. 울산미술대전 특선 1회, 입선 2회(울산)
- 2012. 한마음미술대전 특선(울산)
- 2012. 대한민국미술대상전 최우수상(부산)
- 2011. 신사임당미술대전 입선(강릉)
- 2009~08. 김해미술대전 특선 2회(김해)
- 2009~07. 무등미술대전 · 대한민국한국화대전 입선(광주)
- 2006~05. 세계평화미술대전 입선 2회(안산)
- 2008. 개천미술대상전 특선(진주)
- 서울메트로미술대전(서울) · 부산미술대전(부산)

■ 단체전

- 2013. 꿈꿀권리전 · 울산현대미술작가회전(울산) 경남, 울산 신진작가展(창원)
- 2012. 墨&감성展 · 영남미술의 동향展(대구) 울산,대전 한국화 공감展(울산) 포항국제아트페스티벌(포항) · 울산청년작가전(울산)
- 2011. 영남 한국화 오늘전, 울산현대미술작가회전(울산) 대한민국 한국화 페스티벌(대구)
- 2010. 아시아의 새로운 도약전 부산 한국화 페스티벌(부산) 외 각종 단체전 40여회
- 현재, 꿈꿀권리, 울산현대미술작가회, 울산현대한국화회, 울산청년작가회 회원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40-28

☎ 010-3241-3548

hoho-jeong@hanmail.net



• 작업중인 하혜정 작가

울산시립합창단 제86회 정기공연

헨델 메시아

MESSIAH

2013년 울산시립합창단 마지막 정기연주회로써 인도와 봉사 정신, 그리고 자선을 목적으로 성탄절을 전후하여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세계 곳곳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대작이며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의 하나로 꼽히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울산시립합창단의 송년음악회로 울산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 지휘 / 구 천

2013. 12. 3(화)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지휘 : 구 천 (예술감독 겸 지휘자)
- 협연 : Sop 김방술 / Alto 최미란
Ten 변진환 / Bass 최경열
- 반주 : 챔버 오케스터 서울
- 입장권 : 전석 5천원(회관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 등급 :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 테너/ 변진환**



- 서울대학교 성악과 졸업
- 인디애나 대학 대학원, Bloomington 졸업(전액 장학금)
- NSAL 콩쿨 대상
- Marie E. Crump 콩쿨 대상
- Aucomp by Classical Singer 콩쿨 대상
- Connecticut Opera Guild 콩쿨 우승
- Bel Canto Foundation 콩쿨 우승외 다수 콩쿨 우승

플로리다 그랜드 오페라, 세인트 루이스 오페라, 톨리도 오페라, 내쉬빌 오페라, 인디애나 폴리스 오페라, 뉴욕 뉴로셜오페라, 오페라 포트콜린 외 다수 오페라 극장에서 라보헴, 라트라비아타, 팔스타프, 카르멘, 타이스, 돈 카를로, 루치아, 리골렛토, 사랑의 묘약, 연대의 아가씨 외 다수 주역으로 활동.

- 현 Professor, Lehman College in QUNY (성악과)
- 현 Professor, Kean University in Conservatory of Music(성악과)
- 현 AGAM 소속 오페라 가수

*** 소프라노/ 김방술**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대학원 졸업
- 미국 맨하탄 음대 대학원 졸업(full scholarship)
- 미국 줄리아드음대 오페라센터(JOC) 졸업
- 국립합창단 단원 역임
- 뉴욕 퀸즈 오페라콩쿨 1위, 미국 메트로폴리탄 콩쿨 지역우승을 비롯하여 리더크란츠, 중앙, 베르시모 오페라 콩쿨 등 다수 입상
- 오페라 <춘희> <라보엠> <마술피리> <잔니스 끼끼>

등에 주역으로 출연

- 오라토리오 헨델의<메시아>, 슈베르트의<G장 조 미사>, 구노의<장엄미사>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칼 오르프의 <까르미나 부라나> 등에 솔로이스트로 출연

- 국내외에서 리사이틀, 콘서트, 오페라 등 100여회 연주
- 사사 : 이경숙, 박미애, 김용분, 이인숙, Marlena Malas, Stephen Smith
- 마스터클래스 : 루치아노 파바로티, 키리테 카나와, 토마스 험스, 리치아 알바네제
- 현재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

*** 베이스/ 최경열**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오페라과 졸업
-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가곡 및 오라토리오과 졸업
- 독일 뮌스터 국립 음대 전문 연주자과정 졸업
- 영국 런던 국립음대 합창지휘(FNCM) 디플로마
- 독일 슈베린 국립 오페라극장 솔리스트
- 독일 함부르크 국립오페라 극장 정단원

- 바그너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및 홈퍼딩크 음악축제 초청 연주
- CBS 초청 독창회,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다수 출연
- 오라토리오, 미사, 수난곡, 칸타타, 레퀴엠 등 교 회음악 독창 및 지휘
- 예술의전당 기획 오페라<라보엠>, <안드레아 셰니에르>, <피델리오>, 출연
- 러시아 퍼터스 부르크, 한 · 러 수교 20주년 기념오페라<이 올란타>출연
- 현재, 백석대학교 기독교 문화 예술학부 교수, 한국 독일 가곡 연구회 회원, 온누리교회 주사랑 찬양 사역팀 성가사



*** 캄머 오케스터 서울**

2010년 창단된 캄머오케스터서울은 음악감독 및 상임 지휘자인 김선일 지휘자의 강 력한 리더쉽과 팀원들간의 노력으로 정통성 있는 음을 재현하는데 성공하였다.

창단공연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립합창단의 협연을 시작으로 "서울바로크 합창 단"과 바흐의 칸타타 BWV 21, "Ich hatte viel Bekuemmermis"와 그의 아들 C. P. E Bach의 "Manificat"를 협연 하였고, 안산시립합창단, 아산시립합창단, 순천시립합창 단, 원주시립합창단, 광명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과 협연 하여 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2년 에는 피아니스트 서혜경과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였고 최근에는 드레스덴 바로크 시리즈를 협연하여 순도 높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자랑하는 팀이다.

*** 알토/ 최미란**



- 한양대 음대 성악과 졸업
- 국립합창단 단원 역임
- 국립오페라단 외 오페라 Faust 외 다수 주역 출연
- 오라토리오 엘리자 메시아 외 미사곡 등 시향 협연
- 구노 "파우스트" 모짜르트 "피가로의 결혼"
- 현재명 "춘향전" 등 국내·외에서 오페라 출연
- 헨델 "메시아" 멘델스존 "엘리아" 등 다수의 레퀴엠,
- 미사곡 협연 및 독창회

- (현) 고양시립합창단 수석

울산시민과 문예회관회원을 위한

월드 뮤지션, 그랜드 콘서트

울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하는 '2013 최고의 퀄리티'

울산문화예술회관 회원과 시민을 위한 품격 높은 예술 무대

세계적인 유럽 성악가와 뮤지컬 배우 남경주,
최정원이 함께 하는 매머드급 공연!!

2013. 12. 5(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지휘 : 윤상운(객원)
- 협연 : 성악 - 최현규, 라울 가브리엘 이리아르테,
 왜츠렘 볼우트, 켈사 우이구루
 클라리넷 - 여인호
 뮤지컬 - 남경주, 최정원
- 입장권 : 회관유료회원 - 무료
 일반시민 - 1층 · 3만원 / 2층 · 2만원 / 3층 · 1만원
- 등 급 :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

● 프로그램

- 서곡
 요한스트라우스 2세 /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테너 - 라울 가브리엘 이리아르테
- 서레하르 / 러시아 황태자 중 "혼자로다! 다시 혼자"
 소프라노 : 왜츠렘 볼우트
- 요한 슈트라우스의 박쥐 중 아델레 아리아
 "친애하는 나의 후작님"
 테너 : 최현규
- 레하르 / 파가니니 중 "기꺼이 여인들에게 키스했다네"
 소프라노 : 켈사 우이구르
- 오펜바흐 / 지옥의 오르페우스 중
 "Couplets des baisers"
 소프라노 왜츠렘 볼우트 + 테너 최현규
- 요한스트라우스 집시남작 중 "우리의 주례는 누가"
 테너 : 라울 가브리엘 이리아르테
- 레하르 / 지우디타 중 "친구여 삶은 살 만한 것"
 소프라노 : 켈사 우이구르

- 아르디떼의 입맞춤
 테너 : 최현규
- 슈톨츠 / "비엔나는 밤이 찾아올때만 아름답네"
 소프라노 : 왜츠렘 볼우트
- 거신 / summertime
 소프라노 : 켈사 우이구르 + 테너 : 라울 가브리엘 이리아르테
- 즐거운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
 베버 / 클라리넷 콘체르티노 (클라리넷 여인호)
- Weber / Concerto for Clarinet in E flat major, Op.26
 남경주 - This is the moment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붉은 노을 (이문세)
 최정원 - Fame(페임),
 맘마미아 중 "The winner takes it all"
- 남경주, 최정원
 1. 뮤지컬 토요일 밤의 열기 중 "How deep is your love"
 2. 뮤지컬 그리스 중 "You're the one that i want"

*** 객원지휘 : 윤상운**



지휘자 윤상운은 서울음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서 지휘의 기초과정을 배우고 이어그라츠 국립음대에서 마르틴 투르노프스키(Martin Tumulsky)를 사사하여 지휘과의 최고과정을 졸업하였다.

윤상운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부지휘자를 역임하였고 또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로서 미래의 음악인들과 열정적으로 활동하였으며 그랜드 오페라단의 창단공연을 시작으로 오페라 지휘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인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고 카메라타 부산을 결성하여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새로운 음악의 시도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진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및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협 연 : 클라리넷 / 여인호**



클라리넷티스트 여인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성과 화려한 테크닉으로 맛깔스런 음악을 표현하는 한국의 중견 클라리넷 연주자이다. 그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 후 Rotterdam 음악원에 진학하여 교육 과정(DM)과 전문연주자 과정(UM)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동아콩쿨, 음악협회, 부산콩쿨 등 다수의 콩쿨에서 1위에 입상하는 화려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차례 독주회와 실내악 연주를 통해 폭넓은 팬을 확보하고 있고 수많은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클라리넷 연주자중 한명이다.

*** 테너 : 최현규**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사사 교수: 김문희, 김성호)
-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대와 비엔나 국립음대 오페라, 음악교육학 전공.
- 제15회 Münchner Singschul 및 기념 음악회 참가
- Ks. Renate Holm 과 함께하는 슈베르트 생가 기념 음악회 등 다수
- 현) Wiener Volksoper 단원, 비엔나 음악원 성악과 교수

*** 테너 : 라울 가브리엘 이리아르테(Raul Gabriel Iriarte)**



- 아르헨티나 출생. 음악대학 (Universidad Nacional de La Plata)에서 작곡, 지휘, 성악과 졸업
-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학. '비엔나 국립음대'와 '시립음악원'에서 오페라과 전공
- 합창 지휘자로서 오스트리아, 독일, 이태리, 슬로베니아 등 유럽의 음악축제 다수 참가
- 성악가로서 Wiener Volksoper 단원으로 오스트리아와 체코, 불가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극장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

*** 소프라노 : 길사 우이구르**



- 터키출생. 이즈미르에서 오페라과 전공
- 비엔나와 이스탄불의 워크샵 후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 이야기'에서 올림피아 역
- 모차르트 '마술 피리'의 첫 번째 여인 역할
- 터키 Mersin University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며, 유럽과 터키에서 왕성하게 활동

*** 소프라노 : 왜즈렘 불우트(Özlem Bulut)**



- 터키 Mersin University 와 Mimar Sinan Fine Arts University 에서 오페라과 졸업
-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비엔나 시립음악원' 오페라과 졸업
- Vienna Jazz Festival, Melk Jazz Club 등 참가
- 2013년 "Mia" 에서 뽑은 "우수 예술인"으로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에서 연주.

*** 뮤지컬 : 남경주**



- 뮤지컬 브로드웨이42번가, 넥스트투노멀, 시카고, 맘미아, 위키드, 삼총사, 라카지 등 다수
- 수 상 -1995/1996/1997/2003/2004/2005 한국뮤지컬대상스타상
1997한국뮤지컬대상주연상
1995백상예술대상 인기상

*** 뮤지컬 : 최정원**



- 뮤지컬 -맘미아, 시카고, 고스트, 요셉어메이징, 지킬앤하이드, 렌트, 토요일밤의열기 등 다수
- 수 상 -1995한국뮤지컬대상신인상.
1996한국뮤지컬대상조연상.
1997/2002한국뮤지컬대상스타상.
2001/2010한국뮤지컬대상주연상.

회극

2013 송년공연 邂逅

지역무용인들과 소통! 관객과 교감! 흥겹게 한 해 마무리 하는 춤의 대향연이 펼쳐진다.
축원무, 장고춤, 태평무, 울산학춤, 울산한량무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연말 축제분위기 높이고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보유자 - 정재만 명인 특별출연, 품격있는 무대를 선사합니다!



프로그램

2013. 12. 12(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연출·안무 : 김상덕(예술감독 겸 안무자)
- 훈 련 지 도 : 박정은(지도자)
- 특 별 출 연 : 정재만(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보유자)
- 우 정 출 연 : 최형규, 김성수, 김미자, 정인숙, 김외섭,
(사)한국무용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사)한국문화예술평의회, 울산학춤보존회,
- 출 연 : 울산시립무용단 전단원
- 입 장 권 : 전석 5천원
(회관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 등 급 : 만 5세 이상 입장 가능

- 축원무 | 울산시립무용단
- 율방 | 정인숙
- 진화영무단 '학이 되어' | 김외섭
- 울산학춤 | 울산학춤보존회
- 울산한량무 | (사)한국문화예술평의회
- 태평무 | 김미자
- 입춤 | (사)한국무용협회 울산광역시지회
- 허튼 살쭈미 | 정재만
- 장고춤 | 울산시립무용단

2013년도를 갈무리하는 울산시립무용단 마지막 공연 무대로
 한해동안 울산시민들로부터 사랑 받았던 무용단의 대표작품과
 울산지역의 무용 예술인이 함께하는 무대를 마련하여
 화합과 우정, 소통과 교감을 나누는
 풍성하고 신명나는 무대를 마련하였다.
 이번공연은 특별히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보유자인신
 정재만(숙명여자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춤의 정수인 “허튼 살풀이춤”을 울산시민들에게 선보인다.
 또한 이번 무대는 울산시립무용단의 2013년도 한해의 성과를 정리하는 무대로
 2014년도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하였다.

출연자



예술감독 김상택



정재만



최현규



김성수



김미자



정민수



김현신



(사)한국무용협회 울산지회



(사)한국문화예술경영협회



울산예술단체

울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송년음악회**

2013 ADIEU CONCERT

다사다난했던 2012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2013 송년음악회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레퍼토리를 선사하는 울산시립교향악단의 2013년 마지막 무대!
마에스트로 김홍재의 지휘와 소프라노 김유섬, 테너 김 경이 함께하는 오페라 하이라이트

편안하게 들을수 있는 유쾌상쾌한 선율로 가득한 '도둑까지 서곡' 으로 막이 오르는 이번 연주회는 러시아의 문호 레르몬토프의 동명 희곡에 붙였던 하차투리안의 '가면무도회' 조곡을 선사합니다. 질투심에 불타던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죽여버린다는 내용의 비극인 이작품은 하차투리안 작품중 통속적 성격이 강한데, 작곡기법상 서부 유럽의 무도음악의 영향이 강하면서도 하차투리안의 아르메니아인적인 개성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푸치니의 유명한 작품 [토스카]의 하이라이트를 소프라노 김유섬, 테너 김경이 출연하여 완벽한 무대를 장식합니다.

휴식이후, 연주될 보로딘의 이고르공 중 '폴로베츠인의 춤'은 오페라 이고르공 중에서 제2막과 3막에서 사용된 무곡을 보로딘이 연주회용으로 편곡한 작품으로 단독적인 발레로도 상연될 정도로 인기 있는 작품입니다.

2013 송년음악회는 아름다운 시립교향악단의 선율과 환상의 하모니가 어우러져 12월의 저녁을 감동과 기쁨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울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뜻 깊고 따뜻한 12월의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지휘 / 김 홍 재
(예술감독 겸 지휘자)

2013. 12. 20(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지 휘 : 김 홍 재(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 협 연 : 소프라노 - 김유섬 (창원대학교수)
 테너 - 김 경 (영산대 교수)
- 입장권 : R석 · 1만원 / S석 · 7천원 / A석 · 5천원
(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 등 급 : 초등학교생 이상 입장 가능

■ 로시니 / 오페라 “도둑까지” 서곡

1817년의 작품. 까치가 은식기를 물고 자기의 둥지로 가져간다든거나, 처녀의 손에서 은화를 훔쳐 간다는 이야기 등을 바탕으로 해서, 두 연인의 이야기에 변화를 주고, 약간의 드릴적인 요소까지도 가미시키고 있다. 이것도 『비단 사다리』와 마찬가지로 작은 희가극으로 2막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가극은 상연되지 않고 서곡이 널리 알려져 있다.

서곡 작은북의 독주로 시작된 서곡은 씩씩한 행진곡조가 되어 아름다운 주제와 화려한 진행이 있으며, 아리아가 떠올라 화려하게 마친다.

■ 하차투리안 / 조곡 “가면무도회”

가면무도회는 러시아의 문호, 레르몬토프의 동명의 희곡에 붙였던 곡을 편곡한 것이다. 레르몬토프의 극은 제정 러시아 귀족 사회의 허위와 부패를 묘사한 것으로, 질투심에 불타던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죽여 버린다는 내용의 비극으로서, 하차투리안의 음악은 1939년, 이 연극이 상연될 때 작곡되었다. 모음곡으로의 편곡은 1943년, 그 초연은 1944년, 모스크바 방송국 교향악단에 의해 연주 되었다. 이 곡은 하차투리안의 작품 중에서는 통속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수법상으로도 서부 유럽의 무도 음악의 영향이 강한테 역시 아르메니아인 으로서의 하차투리안의 개성을 이곳저곳에서 발견할수 있다. 5곡이 모두 오도독스한 3부 형식으로 씌어져 있다.

■ 푸치니 / 가극 “Tosca” 하이라이트

■ 보로딘 / “폴로베츠인의 춤”

폴로베츠인의 춤은 오페라 이고르 공의 제2막에 나오는 매우 화려한 춤곡입니다. 12세기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펼쳐지는 오페라인데 폴로베츠족을 정벌하러 갔다가 도리어 포로가 된 이고르 공이 탈출하여 돌아오기까지의 사건을 줄거리로 하여 전개 됩니다. 이고르 공을 포로로 잡은 폴로베츠족의 추장은 그가 적장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에 드는 면도 있어 그를 위로하기 위해 화려한 잔치를 베풁니다. 야만인의 춤, 노예 처녀들의 춤, 소년 소녀들의 춤 등이 화려하고 격렬하게 펼쳐집니다.

작곡가이며 과학자였던 보로딘은 당시 러시아 국민악과 5인조의 한 사람으로 소년시절부터 음악과 과학을 함께 배웠습니다. 9세 때 폴카를 작곡했고 13세 때에 플루트 협주곡을 쓰는 등 천부적 재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17세 때 육군 군의대학에 입학해 의학과 화학을 전공,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여러 음악가들과 교분을 다지며 러시아 국민음악을 건설하고자 했지만 과학자로서의 연구와 교수, 여성 의학을 위한 많은 사회 활동에 바빴기 때문에 작곡은 주로 휴가나 병으로 누워있을 때 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중앙 아시아적인 동양적 야성과 정취가 짙게 담겨 있습니다.

* 소프라노 : 김유섬



- 부산대 졸업.
- 이태리 G.Rossini 국립음악원, OSIMO, MANTOVA 아카데미 졸업.
- 독일 "BONN" 국립오페라단 정식 주역가수로 활동
- 마리오텔 모나코 국제콩쿨 연속2회 1등
- (현) 국립 창원대학교 교수
- 이리스아디미꼬라넷띠 국제콩쿨 1등

- 푸치니 콩쿨2등 등 국제콩쿨 10회 입상
- 예술의 전당 오페라페스티벌에서 공연
- 창작오페라 '황진이' 주역으로 일본신국립극장, 미국헐리우드의 코닥극장, 북경의 21세기극장, 러시아의 크레믈린궁, 하노이 국립오페라하우스,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함
- 이태리 토레텔라고 야외 오페라극장에서 푸치니 오페라 페스티벌 공식 초청작품 '나비부인'에서 주역공연
- 오라토리오 메이아, 천지창조, 사도신경, 레퀴엠, 함창 교향곡의 솔리스트로 연주
- KBS 열린음악회, KBS발굴이사람, MBC가극과 아리아의 밤 등 수천회의 콘서트 출연
- 현 : 부산중앙교회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 국립창원대학교 교

* 테너 : 김 경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Italia Alessandria 국립음악원 졸업
- Italia P. M. Ferraro Accademia 졸업
- Italia Salerno 국제 콩쿨 우승, E.Bastianini 국제 콩쿨 우승, Jose Carreras 국제 콩쿨, Beledere 국제 콩쿨 등 다수의 국제 콩쿨 입상
- Milano-Teatro S. Fedele('92), Freiburg 대성당 초청 독창회('93) 및

서울아트오케스트라초청 독창회('96),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독창회('98) 테너 김경 과 함께하는 오페라 이중창의 밤('99), 열정의 테너 김경 초청독창회(2001) 열정 콘서트 (2006), 김경 교수 초청독창회 (2011) 등 국내외 25회 독창회

- Cartago Opera Festival 초청 연주, Verdi 추모 콘서트(Italia), 중국 상해초청, Austria 정부초청 연주, 일본 NHK 초청공연, 뉴질랜드 교민초청공연, 호주 교민 초청공연, 카자흐스탄 독립기념 초청공연 등 수십 회 국외연주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송년의 밤”

맑고 고운 소리로서 늘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이 오는 12월 17일(화)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한해를 마감하는 “송년의 밤”을 연주회를 개최한다.

2013년 시립청소년합창단은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2회의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회 등을 개최하여 유익하고 재미있는 레퍼토리로 청소년들의 감성을 키워주는 아름다운 노래들을 많이 선사해왔다.

이번 연주회는 올해의 마지막 연주회이자 한 해의 마지막인 송년의 자리로 특별히 KBS울산어린이합창단과 울산동여자중학교합창단을 초청하여 함께 마련된다.

대학입시 준비로 지친 수능생들과 한 해의 학업 공부로 수고한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음악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송년의 자리를 재미와 즐거움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해본다.

2013. 12. 17(화)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지휘자 : 한성용
- 특별출연 : KBS울산어린이 합창단
 울산동여자중학교 합창단
- 찬조출연 : 시립교향악단 트럼펫 수석 한만욱
- 입장권 : 전석 1천원
- 등 급 : 만5세 이상 입장 가능



● 프로그램

- 시립청소년합창단 [희망의 노래들]
 - 노래는, 나의 노래, 기쁨의 노래부르자,
노래보다 더 좋은건 없네
- 특별출연 : 울산동여자중학교 합창단
- 찬조출연 : 시립교향악단 피콜로 트럼펫 독주 (한만욱)

- 특별출연 : KBS울산어린이합창단
- 시립청소년합창단 [사운드오브뮤직 하이라이트]
 - 에델바이스, 도레미송, 내가 좋아하는것들,
산에오르자



Arts Friend

Part.1 예술을 말하다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예술축제를 찾아서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오페라의 거장 리하르트 바그너(IV)

Part.2 12월의 공연 · 전시
12월의 공연 · 전시 일정



도판1. 존 리치, 〈세인트제임스 파크의 어느 겨울날〉, 1858년. 캔버스에 유채, 76 × 127cm, 개인 소장.

존 리치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의 어느 겨울날〉

날씨가 좋은 날이면 우리는 종종 혼자 혹은 정다운 이들과 함께 근처에 가까운 공원에 가서 산책이나 소풍을 즐기기도 한다. 잘 가꾸어진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때로는 책이나 신문을 읽는다. 나무 그늘 아래에 웅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 노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지는 정경이다. 이렇게 혼잡한 도심 속 곳곳에 마련된 작은 녹지 공간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 평범해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 들어온 것은 사실 19세기 중후반 서유럽의 대도시에서 시작된 일이다.

최초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에서는 18세기 중반 이후 유례 없는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 석탄과 원료의 수송이 용이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도시와 근교에 공장이 대규모로 생겨났고, 일자리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몰려들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인구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했던 도시의 곳곳에는 슬럼이 형성되었고, 이곳의 과밀하고 불결한 환경은 수시로 전염병을 유행시켜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하수도를 포함한 공중위생이 도입되었고, 도시의 공원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겨났다.

빽빽하고 불결한 도시 속에서 잠시나마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은 시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했다. 런던에 있는 많은 공원은 사실 예전에는 왕실이나 귀족의 사유지였고, 특정한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는 곳이었다. 19세기에 들어 왕실 소유지가 개방되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하는 공원(public park)이 되었다. 부유한 이와 가난한 이가 같은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신분이 높은 이와 평범한 이가 한 공간에 머물 수 있는 공원은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화가들은 공원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영국의 화가 존 리치(John Ritchie)는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 런던의 갖가지 풍속을 화제로 삼았고, 특히 〈세인트 제임스 파크의 어느 겨울날(A Winter's Day in St. James Park)〉(도판1)과 〈하이드파크의 어느 여름날(A Summer Day in Hyde Park)〉(도판2)은 모두 당시 대중에게 개방된 왕실 공원에서 각양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다루고 있다.

계절에 따른 풍속을 주제로 삼는 예전의 회화들은 대개 추수나 사냥 등을 주제로 삼았지만, 근대에는 대도시에서 시민들이 즐기는 다양한 계절별 여가 활동과 관련된 그림이 제작되곤 했다. <세인트 제임스 파크의 어느 겨울날>은 제목에서 말해주듯 런던에 있는 세인트제임스 파크에 모인 사람들의 활자 지껄한 모습을 담고 있다. 추운 겨울날 얼어붙은 호수는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도심에서의 여유를 즐긴다. 전경의 오른쪽에는 소년이 무릎을 꿇고 앉아 신사의 스케이트를 닦아주고 있고, 그 앞에는 빗자루를 든 자그마한 소녀가 추위에 떨며 그를 바라본다. 화면 왼쪽에는 행상인이 파이를 팔고 있고, 한 커플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바라본다.

그 옆으로는 한 근엄한 노부인이 앉아 있는 썰매를 중년의 남자가 밀고 있다. 스케이트를 신었든, 신지 않았든 모두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 발을 지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화면 가운데 얼음 한복판에는 넘어진 백인 소년들 위로 한 흑인 시동이 막 넘어지고 있고, 그 뒤로는 아이들 때문에 균형을 잃은 한 남성이 모자를 흔들며 넘어지지 않으려 애를 쓰고 있다. 그 뒤로 왼쪽에 있는 옷을 잘 차려입은 신사는 이 남자가 모자를 들어 올린 것을 인사하는 것으로 보았는지 자신의 실크헤트를 들어 화답한다.



도판2. 존 리치, <하이드파크의 어느 여름날>, 1858년. 캔버스에 유채, 955 × 1465 cm, 런던 미술관.

다소 혼란스러워 보이는 겨울의 정경과 달리 <하이드파크의 어느 여름날>은 보다 차분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준다. 여름날 하이드파크의 서편타인 호숫가에 모여 앉은 사람들은 각자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전경의 오른쪽에서는 한 남자가 낚시를 하고 있고, 그 옆에서는 이제 막 한 남자가 아내와 딸을 태운 보트를 띄우려 한다. 이들 뒤로는 소년들

이 장난감 배를 들고 있고, 그 뒤로는 또 마차와 말을 탄 사람들이 지나간다. 그림의 가운데에는 양산을 든 숙녀와 잘 차려입은 신사 부부,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있는데, 바로 오른쪽에는 신발도 못신은 부랑아들이 호숫가로 다가온다. 화면 왼쪽에 있는 벤치에도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데, 맨 오른쪽에 앉아 땀을 닦는 남자와 여자의 발치에는 지도가 떨어져 있어 이들이 런던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임을 알려준다. 그 옆에는 두 여자가 앉아 있는데 한 군인이 왼쪽에 앉아 바느질을 하는 젊은 어머니에게 말을 걸고, 보다 나이 많은 여인이 이를 못마땅하게 보고 있다. 그 옆에 있는 한 신사는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열심히 신문을 보고 있고, 그 아래에 있는 꼬마는 소매치기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본다.

묘사하고 있는 계절과 장소는 다르지만, 이 두 그림은 모두 19세기 근대 대도시의 공원에서의 일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민주주의 시민사회는 출신 계급과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는 평등한 시민의 권리를 주창했고, 모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원은 이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곳 중 하나였다. 당시의 사회개혁자와 박애주의자들은 이러한 공원의 가치를 역설했는데, 노동자들에게 도시의 공원은 잠시나마 고단한 삶을 잊고 도시 속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고용주와 사회 지배세력 또한 공원에서의 여가를 권장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문제를 일으키거나 진보적인 사상을 접하는 것을 막으려는 속셈도 있었다. 또 이런 공공장소에서 상류층이 하는 점잖은 행동을 보고, 이를 따라하며 자연스럽게 ‘공중도덕’을 익히게 하려는 이유로도 공원에서의 여가는 권장되었다.

글 황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발트 3국에 가보셨나요?!

모 항공사에서 한창 ‘유럽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광고 문구로 역맛살 낀 유목민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을 때, 우연히 같은 제목의 여행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멋진 카피를 제목으로 베낀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던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직항편이 없고, 여행 좀 다녔다는 이들에게도 쉽게 용기를 낼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아울러 부르는 발트 3국인데요. 중세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동화 같은 도시 전경과 빼어난 자연 환경, 게다가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는 ‘거기까지 가고 말겠어!’ 라는 불굴의 의지를 샘솟게 했습니다. 이들 3개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아 마치 한 나라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민족, 언어, 통화, 고유의 문화마저도 다릅니다. 발트 3국의 역사는 13세기 독일의 선교활동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에 거주했던 독일인들을 발트독일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후 신항로 개척과 맞물려 발트해 연안의 지리적인 강점이 부각되면서 이들 3개 나라는 덴마크와 스웨덴, 폴란드, 러시아 등 열강의 지배를 잇달아 받게 됩니다. 특히 1991년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는 소련의 점령하에 있어 우리에게 발트 3국이 멀게 느껴졌던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자 성벽으로 둘러싸인 양증맞은 마을이 동화책을 펼 것처럼 등장합니다. 동화책의 한 페이지가 모조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이곳, 바로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Tallin)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버스로 이동할 수 있고, 핀란드 헬싱키나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도 페리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중앙역 근처에 숙소를 잡았는데, 호텔 창문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봤던 높다란 톰페아(Toompea) 성벽과 파스텔 톤의 건물들이 보입니다. 외세의 침략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던 탈린은 13세기 총길이 2.5km, 높이 16m에 달하는 성을 쌓아 적의 침입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성벽 안 구시가지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6개이지만 과거에는 8개, 탑도 35개에 달했다고 해요. 하지만 에스토니아는 독일과 스웨덴 등에 이어 결국 1721년에는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야 했고, 1918년 러

시아 혁명기 때 독립하지만 소련연방이 구축되면서 1940년 다시 강제 병합됐죠. 그래서인지 톰페아 언덕에 올라가면 에스토니아 정부 청사, 수상 집무실과 함께 러시아 정교회의 알렉산드르 넵스키 성당이 딱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러시아 특유의 건축 양식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성당이지만, 에스토니아인들에게는 뼈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굴욕의 상징이기도 하겠죠. 성벽 안으로 들어가면 80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굽이굽이 큼지막한 돌길이 미로처럼 시청 광장으로 이어지고, 귀티 나게 자리 잡은 건물들은 물감에서 예쁜 색만 골라 칠해 놓은 듯 사랑스럽죠. 특히 광장 주변은 마치 파티에 초대된 귀족들처럼 형형색색의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골목골목 자리한 노천카페와 레스토랑, 상점은 크림색 돌바닥과 어우러져 모두가 엮여서 찍어내고 싶은데요. 덕분에 이 작은 도시에는 연중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그만큼 다양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특히 백야가 있는 여름은 축제의 백미들이 자리하는데요. 6월 초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탈린 올드 타운 데이(Tallinn Old Town Day)>는 구시가의 매력을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축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청광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는 밤까지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탈린의 전통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좌판이 들어서는가 하면 중세시대 복장을 한 할머니들이 돌담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름을 알리는 시기라 세찬 소나기가 쏟아질 때도 많은데, 비가 그치고 맑간 하늘이 나타나면 어디론가 흩어졌던 사람들도 삼시간에 골목길을 메웁니다. 어느 공터에서는 군악대의 연주가 우렁차게 퍼지고, 어느 작은 돌계단에서는 통기타를 든 중년의 남자들이 구슬픈 가락으로 여행객들의 발길을 잡지요. 돌길을 따라 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하루 내 돌계단을 오르고 내리며 구석구석을 누벼도 시간이 멈춘 탈린은 지루할 틈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유광장을 통해 신시가지로 나서면 탈린의 오늘이 보입니다. 잔디에 누워 일광욕을 하거나 롤러브레이드를 타며 자유를 만끽하는 현지의 젊은이들, 이들은 올드 타운의 축제보다는 <록 써머 페스티벌>에 몰리겠죠? 탈린의 <록 써머 페스티벌>은 6월 중순에 이틀 동안 열리는데, 발틱 국가 뮤지션들

을 중심으로 세계의 록 뮤지션들이 찾아 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브라이언 애덤스, 스키드 로 등의 이름이 보이네요. 도심을 걷다 보면 꽤 현대적인 건축물들 사이로 곡선의 미가 돋보이는 건물이 보이는데, 1913년에 지어진 오페라하우스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병원으로도 이용됐는데, 지난 9월에는 10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평소에도 오페라에서 발레, 클래식 연주회 등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되니 탈린에 간다면 꼭 한 번 둘러보십시오.

탈린에서 유로라인이나 에코라인 등의 국제버스를 이용해 5시간을 달리면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Riga)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환전소에 들러 처음 보는 라트를 받아들었는데요. 2014년부터는 라트비아도 유로를 사용한다고 하니, 제게는 라트를 써보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호텔에서 얻은 지도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의 요약 노트처럼 명확하고 간단하게 리가의 볼거리가 소개돼 있는데요. 저는 언제나처럼 오페라하우스부터 찾았습니다. 리가는 탈린보다 훨씬 크고 도시적입니다. 고풍스런 건물들 사이로 트램이 지나가는 모습은 유럽의 다른 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곳을 메운 상점과 사람들의 모습이 세련되고 속도도 빠르다고 할까요? 도시적이고 인공적이면서 그래서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입니다. 공원 사이로 순백의 아름다운 건물이 보이네요. 잘 꾸며진 정원과 시원한 분수, 그리고 오후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도심 한가운데 있는 오페라하우스와 주변 환경이 이렇게 멋들어진 조화를 이루다니요. 때마침 이곳에서는 오페라축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처 티켓을 예매하지 못했던 저는 곧장 티켓박스로 달려갔습니다. “티켓은 이미 매진됐어. 하지만 30분 뒤부터 입석표를 판매할 거야.” 인자한 할머니 같은 직원은 어떻게든 공연을 보고 싶은 제 마음을 읽었는지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저는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때문에 리가라는 도시를 알게 됐습니다. 그의 고향이거든요. 물론 미샤 마이스키는 유대계고, 음악 공부는 주로 러시아에서 한 데다, 20대에 이스라엘로 망명한 가족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 감금된 후에는 그도 미국으로 망명했으니 겨우 유년을 보냈던 곳이겠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저는 라트비아를 얘기할 때 항상 미샤 마이스키가 떠오릅니다. 동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그렇듯 리가 역시 일 년 내 문화행사가 끊이지 않는데요. 리가의 오페라축제는 1998년에 시작됐지만, 다루는 작품의 수효나 규모 면에서 동유럽에서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이 오페라축제는 매해 6월 초에 열흘 정도 진행되는데, 라트비아 국립 오페라단의 한 해 시즌이 끝나면 그 가운데 가장 사랑받았던 작품들을 다시 무대에 올리죠. 그래서 현지인들은 물론이고 세계의 오페라 팬들이 찾아든다고 해요. 7월 첫째 주에는 <Rigas Ritmi Festival>도 열리는데, 컨템포러리 재즈와 월드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라트비아 재즈를 필두로 전 세계 뮤지션들의 다양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는데, 특히 시내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의 절반은 무료이기 때문에 낯선 뮤지션들에게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저도 리가에 머무는 동안 중앙역 광장 등에서 세계에서 찾아든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구시가지에는 발트독일인과 중세 상인들이 세운 건물이 많고, 그것이 리가의 가장 큰 볼거리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물은 시청광장에 있는 검은머리전당입니다.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과거 무역 조합인 검은머리길드의 상인들이 리가에 머무는 동안 여관이나 연회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이 길드의 수호신이 모리셔스 출신 흑인성인이라고 하네요.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삼형제(Trīs brāļi) 건물도 있는데,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지어진 집 세 채가 나란히 서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른쪽

건물이 15세기에 세워진 가장 만형으로, 왼편으로 갈수록 나이가 한 세기씩 젊어지는데요. 참, 탈린에는 이와 비교할 만한 세자매 건물이 있습니다. 리가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아르누보(Art Nouveau) 양식의 건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르누보 양식은 유럽적인 소재는 물론이고 이집트, 이슬람, 자연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과감히 차용했죠. 리가의 도심 곳곳에서는 이 아리따운 건축물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리가의 화려한 건물들을 보고 있노라면 미샤 마이스키의 현란한 연주와 맞아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비록 그에게는 유년의 기억밖에 없겠지만, 저는 괜히 리가 만의 이 멋스러움이 그의 화려한 기교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고 우겨봅니다. 저는 리투아니아를 마저 거쳐 다시 리가로 돌아온 뒤 다른 나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관광객에게는 그저 동화처럼 아름답고 예쁘지만 이들 나라에 실은 술한 수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러게요, 불과 25년 전만 해도 그들에겐 독립이 절실했습니다. 발트 3국의 명소에 가면 열강들의 수많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술’이라 불리는 그 많은 것들에 말이죠. 열강들의 흔적, 그 절통같은 제압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스며 나온 그들 고유의 예술혼. 그것이 발트 3국이 가진 ‘멋’이 아닌가 합니다. 유럽 어디까지 가봤니? 정말이지, 아직도 제가 모르는 세상이 많군요.

글 윤하정

KBS 앵커, TBC 방송기자등 방송활동과 YES24 공연매거진등의 공연리뷰 및 인터뷰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지금 당신의 무대는 어디입니까)를 저술하고 현재 영국 유학중이며 유럽 공연여행을 준비 중이다.

격동의 시대, 예술가로 살아남다

- 쇼스타코비치

얼마 전 퇴근길, 해질녘 어스름한 풍경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늦가을의 쓸쓸함을 자극하는 듯한 하늘빛 풍경이었고 매마침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쇼스타코비치의 재즈모음곡 2번의 왈츠 II는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원래 이 곡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버전은 영화 O.S.T로 <번지 점프를 하다>의 해변 장면에서 쓰인 그대로였다. 주인공 태희가 인우에게 춤추자고 권하는... 그러니까 태희와 인우를 연기하는 故 이은주 씨와 이병헌 씨의 영화 속 내레이션이 나오고 쇼스타코비치의 재즈모음곡 2번의 왈츠 II가 흐른 거였다. 좋아했던 배우 故 이은주 씨의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해맑은 목소리 때문이었을까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의 잔상이 남아있었을까 쿵쾅쾅 세 박자의 춤곡이지만 슬프고 우울한 단조풍의 선율이 가슴 먹먹하게 만들었다.



사실 쇼스타코비치(1906~1975)는 대중적인 작곡가는 아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세간의 평가엔 여전히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많은 예술가들이 소련을 탈출했지만 쇼스타코비치는 끝까지 조국 러시아를 지켰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를 굳건히 지킨 체제 옹호자이고 스탈린 덕에 위대한 작곡가가 됐다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스탈린의 공포정치 속에 겉으로만 타협했을 뿐 실제로는 저항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처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작곡가로 살아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 권력의 요구를 수용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자신의 음악적 신념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 또한 했을거라는 생각이 든다.

쇼스타코비치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그의 교향곡 4번을 들어보면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로 흐르는데 이 곡은 당시 말러의 영향을 받아 소련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었다. 하지만 혹시나 이 작품을 발표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까 걱정돼서 무려 34년동안이나 공연하



지 않았다고 하니 그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더구나 뒤이어 작곡한 오페라 ‘므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이 스탈린의 화를 돋궜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오페라에 나오는 살해 장면이 늘 암살 위협에 시달리는 스탈린의 신경을 거슬러 쇼스타코비치는 스탈린과 공산당의 눈 밖에 났다. 이 일로 쇼스타코비치는 공연 금지는 물론이고 작곡 의뢰도 없어져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밤마다 체포의 두려움 속에 살았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공산당이 제작하는 선전용 영화 음악을 만들며 생활을 이어갔는데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작곡가로 살아가지가 만만치 않음을 제대로 느끼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거슬리지 않는 음악 어법을 이용해 교향곡 5번을 만들었다. 다행히 공산당은 이 작품에 호의적이었고 덕분에 그는 다시 작곡가로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이 때문에 그를 공산당과 타협한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스탈린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찬양하기 위한 예술만이 살아남는 시대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도 그렇다. 이 작품은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레닌그라드를 897일동안 포위하고 100만명의 희생자를 내고서 승리한 것을 칭송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 초연 당시 레닌그라드 시 전체와 소련 전역에 생중계가 됐었고 쇼스타코비치의 최대 걸작이라는 스탈린의 평까지 곁들여지며 이 곡이 승리의 찬가인 듯 알려졌는데 하지만 실제 쇼스타코비치의 작품 의도는 히틀러의 전쟁 승리 찬양이 아닌 잔인한 독재와 반인간성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반나치 정서를 담은 거라는 얘기인데 겉으로 보이는 음악의 분위기와 속 얘기는 전혀 달랐다는 얘기가.

음악의 이중어법, 그것이 쇼스타코비치가 그 시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예술 어법이었고 그의 다른 교향곡에도 그런 예는 찾아볼 수 있다. 교향곡 8번만 해도 그렇다. 들어보면 굉장히 우울하다. 1943년 독소 전쟁 중에 나온 곡으로 곡만 들으면 소련이 패배를 한 전쟁 같다. 하지만 실제로 소련이 승리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나온 작품이었고 때문에 투쟁의지가 결여됐다는 이유로 비난 받으며 연주가 금지됐다. 그리고 교향곡 9번도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걸작이 아닌 풍자를 넣은 유머 넘치는 곡을 만들었는데 이 뜻을 간파당해 스탈린의 격분을 사기도 했다. 때문에 인민의 반역자로 몰려 중앙회의에 강제로 소환돼 좌중의 비판을 감내해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마냥 체제에 순응했던 작곡가는 아니었던 듯 하다.

사실 어느 작곡가가 자신의 작품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걸 좋아하겠는가. 쇼스타코비치의 재즈모음곡 2번의 왈츠Ⅱ를 들으면 시대적 금기와 자신의 예술을 표출하고 싶은 욕망 사이의 흔들림 같은 것이 느껴진다.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자신이 펼치고 싶은 음악적 메시지를 마음껏 내볼 수 없었던 쇼스타코비치의 고뇌를 끽끔씩 세박자의 아름답고도 슬픈 왈츠 선율에서 읽어본다.



글 김수연

KBS울산 라디오 「러브 클래식」등, 라디오·TV프로그램 진행 및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리하르트 바그너(VI)



〈루트비히 왕〉

루트비히 왕의 후원으로 1865년 6월 초연한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즈음부터 뮌헨 궁정 내에서는 바그너 축출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고 뮌헨의 언론들도 이에 가세한다. 루트비히 왕이 바그너에게 너무나 많은 돈을 쏟아 부어 내각과 측근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바그너가 익명으로 발표한, 그러나 누가 읽어보아도 바그너가 작성한 것이 분명한 글에서 내각을 공격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루트비히 왕은 어쩔 수 없이 바그너에게 추방령을 내린다. 루트비히 왕은 이후로도 계속 바그너를 후원한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민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된다. 민나의 말년에 두사람 사이는 험악한 관계로 치달았고 결혼 생활 중에도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바그너가 가장 힘들었던 파리 시절 자신의 곁에 있어준 민나에 대한 고마움이 함께 어우러져 바그너의 감정은 실로 복잡 미묘했다.

바그너는 1866년 4월 스위스 루체른 호수 근처 트립센(Tribtschen)으로 거처를 옮긴다.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코지마와 바그너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나가고 루트비히 왕은 결국 이들의 관계를 알게 된다. 바그너는 루체른의 조용한 호숫가에서 〈뉘른베르그의 마이스터징거〉 작곡에 전념하여 1867년 2월 완성하고 1868년 6월 뮌헨 궁정가극장에서 초연하게 된다. 〈리엔치〉 이후 최대의 성공을 거둔다. 코지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트립센에 영구히 정착을 하게 된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와 〈반지 사이클〉 중간에 위치한 〈뉘른베르그의 마이스터징거〉 역시 바그너가 집적 대본을 집필했다. 바그너는 E.T.A. 호프만 〈항아리 장수 마르틴 두목과 그의 제자들〉, 다이하르트슈타인 희곡 〈한스 작스〉, 롤칭의 〈한스 작스〉, 야곱 그림의 논문 〈옛 독일 마이스터의 노래에 대하여〉 등을 참고로 연구하여 집필했다. 예전(1834~1835)에 뉘른베르그에 체류할 당시 직접 경험했던 거리의 소란함, 길거리에서의 난투 등등을 작품에서 그대로 재현해 내었다.

바그너의 다른 작품은 주로 중세의 전설이나 이야기를 모티브로 대본을 집필했지만 이 작품은 실제 인물을 모델로 집필하였다. 여느 다른 작품과는 달리 초인적이고 신비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 아닌, 현실 사회와 실제 인간의 능력, 인간성을 강조하면서 독일 시민계급의 예술을 전체적으로 밝고 희극적인 분위기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뉘른베르그의 마이스터징거〉는 바그너의 다른 작품과는 차별화되는 하나의 독특한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뉘른베르그의 마이스터징거〉의 탄생 시기는 이전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 비극을 이상적인 극의 형태로 삼아 바그너는 자신의 종합예술론을 전개하였는데 고대 그리스 연극의 관습에 따라 비극(탄호이저)를 완성하였고 1861년 파리에서 초연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는 희극적인 요소가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뉘른베르그의 마이스터징거〉에 대한 초안을 집필한다.

하지만 1862년 바그너가 독일에서의 추방령이 해제되고 루트비히 국왕의 도움을 받아 〈반지 사이클〉 집필에 몰두함으로써 〈뉘른베르그의 마이스터징거〉는 일단 멈추게 된다. 1865년 12월 뮌헨에서 바그너가 추방됨으로 해서 다시 〈뉘른베르그의 마이스터징거〉 집필에 전력을 기울여 1868년 8월 초연에 이르게 된다.

1868년 11월 바그너는 누나가 살고 있던 라이프찌히에서 프리드리히 니체를 만난다. 당시 니체는 24살의 젊은 나이로 바젤대학교 교수로 임명될 즈음이다. 니체는 아마추어 작곡, 수준급의 피아노 연주실력 등 음악예술에 대한 애정과 가치부여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처음 니체가 바그너를 만났을 당시 바그너가 주창한 예술장르 통합에 대한 니체의 열광은 그의 저서 <비극의 탄생>(1872)에서 잘 나타나있다. 예술과 철학에서 그리스적인 가치를 제대로 구현해 낼 예술가로서 바그너에 대한 경외심과 한없는 존경을 표현하고 있다.

바그너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도덕성(코지마와의 관계)과 반유태적인 글 때문에 자신을 비난했지만 그 당시 주목받던 젊은 학자 니체는 바그너 자신을 완벽히 이해하고 숭배한 것이다.

니체와 바그너의 만남이 거듭 될수록 니체는 바그너의 비서 같은 고용살이가 거듭된다. 원고정리, 장서 정리, 아들 지크프리트의 가정 교사 역할 등등.. 바그너에게 빠진 니체는 바젤 대학의 교수직까지 그만두려 했으나 바그너는 이를 말렸다. 왜냐하면 바그너는 니체를 통하여 학계에서 인정을 받으려했고 니체를 통해 학계에 바이로이트의 이상을 전파하려는 속셈이었다.

이러한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관계가 지속되다보니 니체는 차츰 바그너의 음악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모순들을 깨닫게 된다. 바그너에게 헌신해 온 니체는 그 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1868년부터 1876년까지 지속된 니체와 바그너의 관계는 서로 등을 돌리면서 끝이 난다.

바그너가 세상을 떠난 해인 1883년 니체는 자신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첫 부분을 완성한다. 여기에서 니체는 바그너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동물에 비유했다. 처음에 니체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강자(바그너)에게 굴복하였는데, 이는 복종하면서 짐 신기를 기다리는 낙타의 모습이었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낙타(니체)는 이내 자신의 의지를 찾아 고독한 사막으로 도망쳐서 자신의 짐을 벗어던지고 맹수의 왕 사자로 변한다고 묘사하고 있다.

1869년 바그너와 코지마 사이의 세 번째 자식인 아들 지크프리트가 태어난다. 바그너 57세, 코지마 33세이던 1870년, 드디어 코지마는 한스 폰 빌로와 이혼하고 바그너와 결혼을 한다. 이 때 이미 두사람 사이에는 두 딸(이졸데, 에바)과 아들 지크프리트를 두고 있었다.

지크프리트는 성장하여 아버지 뒤를 이어 작곡가 겸 지휘자가 된다. 바그너의 작품 중에 대중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소품인 <지크프리트의 목가>는 이 아들을 위해 작곡하여 1870년 12월25일 코지마 생일 아침에 연주된 작품이다.

이제 다시 <지크프리트> 3막 첫 부분부터 작곡을 재개한다. 1857년 중단한 이후 실로 12년 만이다. 너무 오랜 기간 중단한 이후여서 작품의 변화가 뚜렷이 감지되는 면도 있다. 하지만 긴 세월 동안 새로운 음악성과 창의력을 쌓은 바그너가 작곡한 <지크프리트> 3막은 음악적으로 아주 뛰어난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크프리트>는 1871년 작곡을 완성한다.



<한스 작스 494~1576>



<프리드리히 니체>

글 송종건

영국 런던 라반센터에서 무용정치학, 무용사, 무용미학을 전공하고 「무용예술의 존재론적 특성과 비평」, 「무용 그리고 '움직임의 연기」, 「무용과 비평」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무용과 오페라) 발행인겸 작가로 활동 중이다.

Performances

울산연극협회 특별공연 창작악극 “타항살이”

일 시 | 12. 1(일) 14:00/17: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10,000원

주 최 | (사)한국연극협회 울산광역시지회

■ 공연개요

공연예술 발전과 연극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울산의 대표적인 대중예술가인 고 고복수 선생의 일대기와 그의 주옥같은 노래, 그리고 울산의 근현대사를 모티브로 대중적인 연극장르인 악극을 울산시민에게 선보임

■ 작품내용

일제시대 태화강 나루터에서 나룻배를 몰고 생계를 유지하던 용우는 도화골의 순옥과 사랑이 싹튼다. 병영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재봉은 그들의 시신을 황방산에 안치한다. 병영만세운동을 겪은 용우는 자신도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각오를 순옥에게 전하는데...

제78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 김계화선생님 추모공연 ”

일 시 | 12. 1(일) 18: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R석·50,000원/S석·30,000원

주 최 | 동국예술기획

■ 공연개요

지금까지 78회의 공연을 성료시킨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관객에게 전통예술의 정수를 맘껏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전통예술인에게 예술적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종합적인 무대

제17회 울산 중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2. 3(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중구 여성합창단

■ 공연개요

중구여성합창단의 열 일곱번째 정기연주회를 통해 시민들의 마음에 풍요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작품내용

- 합창(옛님 외 5곡)
- 중창(빨간 구두아가씨 외 3곡)
- 독창(여자보다 귀한 것 없네)
- 가곡(고향의 노래 외 3곡)

2013 국악한마당

일 시 | 12. 5(목)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사)한국국악협회 울산광역시지회

■ 공연개요

국악관현악, 실내악 및 민요, 사물놀이 등을 통해 전통음악의 보급 및 발전, 국악인에게 영예로운 등용기회 제공하고자 함

■ 프로그램

- 국악실내악 : 해오름, 아리랑을 위한 노래
- 원장현류 대금산조
- 민요연곡 - 넝리리아, 밀양라리아, 경북궁타령, 신고산타령
- 국악실내악 : 해금과 소금을 위한 아리랑
- 한국무용 : 금학무* 외 다수

제16회 울산교사 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2. 6(금)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광역시 교육청

■ 공연개요

건전하고 밝은 애창곡 합창을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매년 다양하고 참신한 레퍼토리를 소개하여 지역 합창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작품내용

- 1부 : 여성합창 (Mass)
- 2부 : 여성합창 (내 맘의 강물, 외가길)
- 3부 : 혼성합창 (와그라노, 라구요)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감 “Bravo my life!!”

일 시 | 12. 7(토) 19: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삼성정밀화학

■ 공연개요

임직원 및 가족 그리고 지역 소외계층을 초청하여 뮤지컬 “점프”공연을 함께 관람

제4회 김소영 민족소리원 정기공연 소리 콘서트“소리비 2”

일 시 | 12. 7(토) 18: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김소영민족소리원

■ 공연개요

김소영민족소리원의 네 번째 정기공연으로 정통 판소리의 경쟁력, 문화적 재원의 가치를 느껴보고 현대느낌에 맞는 우리식 국악가요를 창작 퓨전곡으로 선보임

■ 작품내용

- 판소리
 - 심청가 ‘심봉사 눈뜨는 대목’
 - 춘향가 ‘옥중가’
 - 수궁가 ‘토끼 수궁들어가는 대목’
- 퓨전 창작곡(소리비)

2013 그라시아스 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

일 시 | 12. 8(일) 15:30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R석·80,000원/S석·60,000원

주 최 | 국제청소년연합 울산지국

■ 공연개요

성탄을 주제로 한 음악을 통하여 슬픔을 기쁨으로 거듭나도록 듣는 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함

■ 프로그램

- 1막 : 기쁨(고요한밤 거룩한밤 외 3곡)
- 2막 : 탄생(곧 오소서 임마누엘 외 4곡)
- 3막 : 행복(Silver Bells 외 3곡)
- 4막 : 영광과 경배(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외 4곡)

제3회 세이바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12. 8(일) 19: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세이바 청소년 오케스트라

■ 공연개요

세이바 청소년 오케스트라 팀이 꾸준히 연습하여 익힌 예술적 재능을 정기연주회를 통해 그 기량을 평가받고 대중에게는 친숙한 곡을 연주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나아가 클래식 인구의 저변확대에도 기여함

■ 작품내용

- 재즈모음곡 제2번 중 왈츠
- 태극기 휘날리며 OST
- Mamma Mia 메들리
- 레이제라블 메들리
- 신세계 교향곡 테마 메들리 등

2013 울산MBC 특별기획 창작오페라 “박상진”

일 시 | 12.13(금) 19:30

12.14(토) 16: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주)울산문화방송

■ 공연개요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조국 독립의 염원으

로 목숨까지 초개처럼 버린 위대한 민족혼과 조국애를 감동의 그랜드 오페라로 재현

■ 작품내용

- 상덕태상회 대한광복군
- 죽음을 각오한 어머니 문상
- 의로운 길을 위한 판사를 포기
- 아내를 향한 애절한 사랑
- 스승 허위의 3년 복상
- 마지막 순간까지 생사를 함께한 동지들

2013 망개 정기연주회 “난리국”

일 시 | 12.14(토) 16: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퓨전국악실내악단 망개

■ 공연개요

울산을 주제로 울산노래와 전설을 찾아 해설을 곁들인 공연

■ 프로그램

- 퓨전국악실내악
- 실내악과 소리의 만남
- 드라마 OST모음
- 난장
- 실내악과 사물의 만남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정기공연

일 시 | 12.15(일) 17: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

■ 공연내용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는 지역의 결손 가정 아이들로 구성된 팀으로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정서적 안정을 주고 음악적 재능을 키워주기 위한 오케스트라 팀 창단 연주회

■ 프로그램

- 작은별 변주곡 외 3곡
- 인생의 회전목마
- 가브리엘 오브에
- 오카리나 연주

남구 구립교향악단 12월 정기음악회

일 시 | 12.17(화)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 남구 구립교향악단

■ 공연내용

- 클래식 및 합창음악을 통해 울산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지방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 서곡 및 교향곡, 기악곡, 합창곡 등을 연주

■ 프로그램

- 오케스트라 연주
- 바리톤 협연
- 합창단 협연
- 소프라노 협연
- 오케스트라 연주

제17회 울산교육문화예술제

일 시 | 12.18(수) 14: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광역시교육청

■ 공연내용

각 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교사학부모와 중등학예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들이 함께하는 사제동행 공연

■ 작품내용

- 항구(창작시낭송)
- 영화음악 메들리(관악합주), 돈키호테(발레)
- 오페라 'La Traviata'중 축배의 노래
- 빨간구두 아가씨, 아빠의 청춘 메들리
- 도라지꽃/아리랑
- 영남사물놀이/웃다리 사물놀이 등

크리스마스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일 시 | 12.21(토) 11:00/14:00/16:00

12.22(일) 13:00/15: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25,000원

주 최 | 화니컴퍼니

■ 공연내용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차이코프스키 발레동화를 각색하여 노래와 안무, 배우 연기를 통한 뮤지컬로 제작

■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못생긴 호두까기 인형을 사랑하게 된 마리,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을 노리는 생쥐왕과 맞서 싸우며 호두까기 인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데...

한국예인연전(울산편)

일 시 | 12.21(토) 19: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R석·30,000원/S석·10,000원

주 최 | 백중예술단

■ 공연내용

울산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과 지역간의 문화교류의 교량적 역할로 타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열린 문화의 순

환, 환기의 무대

이루마 크리스마스 콘서트

일 시 | 12.22(일) 18: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V석·77,000원/R석·66,000원

S석·55,000원

주 최 | ubc울산방송

■ 공연내용

한국을 대표하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펼치는 아름다운 선율과 협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애절한 크리스마스 콘서트

■ 프로그램

- It's Your Day/ May Be/ Chaconne
- Indigo/ Letter/ Loanna Kiss the rain/ Sky
- Present/ River flows in you 등

가족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럴”

일 시 | 12.25(수) 11:00/14:00/16: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20,000원

주 최 | 플러스기획

■ 공연내용

세계에서 널리 사랑받는 명작 「크리스마스 캐럴」은 사랑과 나눔과 인정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교육적 효과와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공연

■ 작품내용

가족 없이 홀로 사는 스크루지는 돈을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이웃을 돕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스크루지에게 이브날 밤 세 유명이 차례로 찾아옵니다.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여행하며 스크루지에게는 무언가 변화가 생기는데...

가족뮤지컬 “자두와 골드레인지어”

일 시 | 12.28(토) 11:00/14:00/16:00

12.29(일) 11:00/14:00/16: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R석·25,000원/S석·20,000원

주 최 | (주)knp엔터테인먼트

■ 공연내용

짱구보다 엽기적인 초딩 자두와 골드레인지어 만나 벌어지는 대박 사건 이야기

Exhibition

참여 조동래 개인전

기 간 | 12. 5(목)~12. 10(화), 6일간
장 소 | 제1전시장
주 최 | 개인(조동래)

■ 전시내용

새로운 서예의 미적탐구 및 마음을 다스리는 개인의 창작 서예작품으로 한글 가훈 등 서예작품 120점 전시

이은정 개인전

기 간 | 12. 5(목)~12. 10(화), 6일간
장 소 | 제2전시장
주 최 | 개인(이은정)

■ 전시내용

현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개인의 잠재의식 속 현상을 표현하는 비구상 미술작품 23점 전시

울산대 평생교육원 사진작품전

기 간 | 12. 5(목)~12. 10(화), 6일간
장 소 | 제3전시장
주 최 | 울산대 평생교육원

■ 전시내용

울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진과정 졸업작품 전시로 초급, 중급, 작가반 학생들의 사진작품 총 40점 전시

울산대 평생교육원 사진작품전

기 간 | 12. 5(목)~12. 10(화), 6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울산대 평생교육원

■ 전시내용

울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제6회 정기 졸업작품 전으로 평생교육원 현대미술실기과정 학생들의 미술작품 50점 전시

제20회 울산 교직원 작품전

기 간 | 12. 12(목)~12. 17(화), 6일간
장 소 | 제1,2,3,4전시장
주 최 | 울산광역시교육청

■ 전시내용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들의 미술작품 전시회로 서양화, 동양화, 서예, 문인화, 공예, 조소,

사진, 시화 등 8개 분야 200점의 작품 전시

대한민국 현대인물화가 교류전

기 간 | 12. 19(목)~12. 24(화), 6일간
장 소 | 제1전시장
주 최 | 울산인물작가회

■ 전시내용

아홉 번째 울산인물작가회 정기전 및 서울, 부산, 대구의 그룹 단체 교류전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초상화 작품 45점 전시

제11회 창 회원전

기 간 | 12. 19(목)~12. 24(화), 6일간
장 소 | 제2전시장
주 최 | 창

■ 전시내용

창신대학 미술과 열한 번째 동문 정기전으로 색감, 형태, 소재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표현한 구상, 비구상 미술작품 30점 전시

제5회 울산장애인미술협회 회원전

기 간 | 12. 19(목)~12. 24(화), 6일간
장 소 | 제3전시장
주 최 | 울산장애인미술협회

■ 전시내용

울산장애인미술협회의 다섯 번째 전시회로 장애를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통해 완성해낸 유화, 한국화, 공예 등 미술작품 27점 전시

제21회 SK사진동호회 회원전

기 간 | 12. 19(목)~12. 24(화), 6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SK사진동호회

■ 전시내용

SK에너지 사내 사진동호회의 정기 회원전으로, 빛과 사진을 주제로 하는 사진작품 60점 전시

신명순 도예전

기 간 | 12. 26(목)~12. 31(화), 6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개인(신명순)

■ 전시내용

한국도자기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표현하는 도예 전시로 다구 및 백자 향아리, 사발 등 도예 작품 30점 전시

당신의 불링불링한 ART 스타일 완성!



Always,
with you

비상 대피로가 어디에 있습니다.
화장실 위치를 어디에 있습니다.
방화 단속을 위해 걸은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은 관람객 여러분
가슴속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문신보라색을 지우기 위해입니다.

☀️ 문예회원에 가입하면 공연정보와 할인혜택이 솔솔~

회원의 종류

가입 기간	청소년회원	일반회원	가족회원 (4인기준)	단체회원 (10인기준)
1년	1만원	2만원	4만원	10만원 (1인추가시 1만원)
3년	2만5천원	5만원	10만원	25만원 (1인추가시 2만5천원)
5년	4만원	8만원	16만원	40만원 (1인추가시 4만원)
10년	7만5천원	15만원	30만원	75만원 (1인추가시 7만5천원)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74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 전화·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셔야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

- 인터넷 가입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울산문화예술회관
농협 317-8245-8245-41 / 울산문화예술회관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회원혜택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회관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공연 30% 할인 (일반 2매, 가족 4매, 청소년·단체 1매)
 - 회원을 위한 특별기획공연 초대 (일반 2매, 가족 4매, 청소년·단체 1매)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이내 할인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료 5%)
※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등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친구가 되어 주세요!!

-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와 페이스북(ID:Ulsanartcenter)에 친구 신청을 하시면 빠른 티켓 오픈 정보와 공연,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를 방문하시면 친구 신청이 쉬워집니다.

울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2/0/1/3

송년음악회

2013. **12. 20**(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